

[종합·해설]

여야 '남북정상회담' 신경전

한나라 "내년 대선정국용 의심" 우리당 "정국타개 최상의 카드"

정계개편 정국에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한나라당은 여론에서 정국타개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정계개편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정국타개를 위한 대선 카드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 여론에 대한 민심이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곧 대선 정국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정상회담은 내년 3~4월로 예상하고, 북핵과 평화협정 전환 문제, 대북 원조 등이 주된 의제가

특히 열린우리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은 정계개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정국 타개를 통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 최상의 카드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동영 전 의장이 지난 5일 방중(訪中)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년 3~4월이 적기"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남북정상회담을 열 시간이 없다"고 말한 점을 이를 극명하게 반영한다.

여당 의원들도 정계개편의 가닥이 잡히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여당은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논란은 6자 회담이 아직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정계개편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미리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時祭 올리는 국회의장 임재정 국회의장이 12일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백호 임재 선생의 묘소에서 나주시 임씨 절도공파 문중 시제(時祭)를 올리고 있다. /연광뉴스

예산안·사학법 절충 난항

여야 합의처리 시한 15일 넘길 듯

새해 예산안 처리와 사학법 처리를 놓고 합의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아 여야 합의처리 시한인 15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2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으나 예산안 삭감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예결특위는 당초 이날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뒤 13일 증액심사, 14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물리적으로 이 때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결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 예산을 중심으로 4조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1조1천억원 이상의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기한을 다음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여당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당은 가급적

회기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까지로 잡혀있던 임시국회 일정이 내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교육위 양당 간사인 우리당 유기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간 접촉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 처리 문제를 협의했으나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한나라당은 추천 주체의 확대를 주장해 의견결근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민주 의원총회 정계 촉각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22일로 확정된 가운데 13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 및 대표단 연석 회의에 정계개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이날 회의에서는 한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와 함께 민주당의 대응 자세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역의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자금 재판과 관련한 형량 문제를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화갑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심경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보다는 위기 국면에서의 민주당의 대응책과 관련한 논의가 우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정계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고건 전 총리의 원탁회의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참여하게 된다면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말 바뀌어 탈 與 의원 도대체 누구냐"

'전여옥 발언' 우리당 술렁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던진 발언이 열린우리당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전 최고위원이 "우리당에서 한나라당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우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니면 말고식"의 구태정치"라고 즉각 반박했으나 당 내부에서는 적잖은 술렁거림이 감지되고 있다. 당내부 사태에 가까운 갈등상황으로 가뜩이나 여수선한 여당 내에서는 "도대체 누구냐"는 물음에서부터 실제로 '의원명단'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여당 의원의 한나라당 이적 가능성에 대해 갖가지 추측성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현재 당 안팎에서 근거가 있든 없든 이름이 회자되

고 있는 의원은 대략 10여명. 도 의원 출신의 A의원, 장관직을 지낸 B의원, 영남출신 C의원을 비롯해 충청·안천지역 의원 4~5명과 당내 중도·보수그룹 대표인사들도 복수로 거명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한나라당이 우세한 지역 출신 의원들이고, 이념적 색깔이 보수적이라는 나름의 근거에 기반해 한나라당 이적가능성이 있는 의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하지만 해당의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B의원은 "한나라당이 정계서 문제로 장난치는 것"이라며 "탈당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일축했고, C 의원은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

상품권 사업 관여 조성래 의원 조사키로

사행성 게임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이 상품권 업체 총판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의원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삼미의 상품권 운영 게임과 관련해 조의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불법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의원

의 친척이 상품권 지정업체인 삼미의 총판업체를 운영한 단사를 포착하고 이 총판업체 대표를 조사했으며 이 업체의 지분 관계를 모두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의원을 하고인 신분으로 불러 총판업체 운영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
총발·영리·모임
사설·상담·대법·부동산
·전화: (062)227-9600
·FAX: 227-9500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의주권계승공고)
주식회사 정현(주)와 유한회사 영선(주)은 4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주)은 그 재산(영입)의 일부(정기금(인부)를 포함하여 그 분할된 부채(채)와 합병하고 (주)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합병 제30 조제2항에 의거 갑의 출자 재산(의의)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가 제일 이일부터 개월내로 이의 제출과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에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06년 12월 13일
(갑) 주식회사 장 천
전남 목포시 옥암동 965-7 스키아 오피스텔 303호
대표이사 이종경
(을) 유한회사 영선전철
북포시 옥암동 1041-13
대표이사 이주연

분 실
대법 100CC
005977 이혼자등차제자증 분실
No. KMYSH100B6C006977
분실일 2006년 12월 11일
복구 매각동 214-16 임실치즈피자
최후소지인 김정국
상기 오토티아제자증을 분실공고함.

금 매
서석고 정문양 정원빌라
81평 매매 2억(분양가 3억6천)
연락처 011-609-1245

전원주택지분양
(150평~250평)
● 화순읍 근교(5분거리)
● 허가필(건축가능)
● 남향 전망좋은
● 가격 전화로 결정
☎061)375-8821, 011-629-6051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주)파노아(대표자: 박병영)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공고(건설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의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의정서를 제출하십시오.
2006년 12월 13일
1. 양도권 건설업의 종류
○ 실내건축공사업 공구번호 2006-01-01호
2. 양도대상일: 2007년 1월 2일
3. 양수대상일: 2007년 1월 2일
4. 양수대상인 양수인
가. 가. 간: 2007년 1월 11일 18:00 전
나. 제출장소: 광주 서문동 27-201 (062-338-7222) 광주 서문동 115-292 4층 (062-333-1870)
5. 양수자
대표자: 박병영
상 호: (주)파노아엔터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지동동 1185-5번지 4층
6. 양수자
대표자: 박병영
상 호: 삼진건설(주)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지동동 227-9번지 2층

상속한정승인공고
판 최복순(760320-1635228)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한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채권 또는 수증할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년 단 753호
공 고 안: 1. 최복순 2. 최병만 3. 최다영 (위 청구인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천관자 모 최희금)
한정승인수리일: 2006. 12. 8
공고기간: 2006. 12. 13 ~ 2007. 2. 12
연 락 처: 순천시 불암면 화산리 807 최복근(010-5539-8093)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5하연915 면책 (2005하단898) 파산선고
파 산 자 정막동 (570617-*****)
주소 광주 남구 월산동 984-2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연194 면책 (2006하단187) 파산선고
파 산 자 이상민 (640327-*****)
주소 광주 서구 광천동 651-44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연282 면책 (2006하단273) 파산선고
파 산 자 이상미 (590604-*****)
주소 여수시 문수동 797 주공아파트 104동 1210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연414 면책 (2006하단407) 파산선고
파 산 자 정중철 (510904-*****)
주소 광주 북구 중흥동 690-1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2월 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 성 흠

2007 국가직/지방직 대비 개강 1월 2일
7급 공무원 특강
現 노량진 올스타 교수진 실강 강의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 환불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소방직, 교정직
● 특별이벤트: 1. 기본교재 3권(10만원 상당) 무료 증정 2. 정독실(365일 24시간 개방) 30% 할인
공 인 무 료 교 2007년 10월
중개사 무료 육 시험 대비
- 재직자(고용보험 가입자) 무료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전국 공인중개사 스타 교수진(EBS방송강사) 총 출강(저차직강)
개 강 1월 2일 첫진도 (주간반, 야간반)
※ 2개월 이상 수강 신청시 최신 스타폰 증정(SK텔레콤 단말기)
● 메가론급 자신감 ●
메가고시학원
http://www.gmega.co.kr
● 연합전산기술지원: 강남공인중개사학원 ● 위치: 전남여고 후문 ● 상담전화: (062)226-5050, 225-8181

www.khfc.co.kr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보금자리론 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 보금자리론 10년, 15년, 20년,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가능)
●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부족한 분에게 보증지원을 해드립니다
● 학자금에 필요한 대학(원)생에게 보증지원을 해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은 은행, 보험사(상생생명, 삼성생명, LG손해보험, 대한생명), 여신전문사(한화(해피)생명)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입금리와 앞선 매수를 얻어가는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 광주지사 | 062)233-2515